

「洛伽筆談」의 일 연구

- 「문헌통고 경적고」의 유용(流用)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kga Pildam*

: A Case Study of Plagiarism Appeared in the *Nakga Pildam* Based on Ma Duan-lin's Wenxian Tongkau Jingji-kau, or the Bibliographical Part of the Guide to Older Chinese Culture and Institutions

리 상 용(Lee, Sang-yong)*

◁ 목 차 ▷

1. 서론	3.4 「洛伽筆談」의 분류 체계
2. 이학수의 가계 및 생애	3.5 해제
3. 「洛伽筆談」의 개관	4. 「문헌통고 경적고」와의 차이
3.1 전래본	4.1 유목설정의 차이
3.2 「洛伽筆談」의 저작성 문제, 편찬 동기 및 성격	4.2 목록기입의 차이
3.3 「洛伽筆談」의 「문헌통고 경적고」 유용 사례	5. 「洛伽筆談」의 유서와 안어
	6. 결 론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조선 후기의 선비 이학수(李學洙)가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인 「洛伽筆談」이 원나라 문인인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 경적고」의 내용을 유용(流用)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 같은 진제 하에서 「洛伽筆談」이 「문헌통고 경적고」와 차별화되는 특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洛伽筆談」은 비록 「문헌통고 경적고」의 내용을 유용하였지만 나름대로 특색을 지녔으며, 그 체재 면에서 볼 때 한국서지목록학사상 「홍씨독서록」 다음으로 유서가 붙은 두 번째 목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要語 : 이학수, 하석만고, 洛伽筆談, 마단림, 문헌통고, 홍씨독서록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부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0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lagiarized cases of *Nakga Pildam*, or a classified annotated bibliography of older Chinese books compiled by the later Chosun scholar, Yi Hak-su, based on Ma Duan-lin's *Wenxian Tongkau Jingji-kau*, or *The Bibliographical Part of the Guide to Older Chinese Culture and Institutions in Song-Yuan Dynasty*. In so doing, this study sheds lights on the distinct characters of *Nakga Pildam* from *Wenxian Tongkau Jingji-kau*. Even though the former appropriated the latter's contents, *Nakga Pildam* has its own distinguishing qualities and a significant meaning as the second classified list which has the introductory words and outlines of classes after the *Hong-ssi Tokseo-rok*, or *Classified Annotated Bibliography of Chinese and Korean Older Books in the history of Korean bibliography*.

Key words : Yi Hak-su, *Nakga Pildam*, Ma Duan-lin, *Wenxian Tongkau Jingji-kau*, *Hong-ssi Tokseo-rok*

K C I

1. 서론

우리나라 조선 중기와 후기에는 많은 목록들이 편찬되었다. 개인이 편찬한 목록으로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 등이 있으며, 왕명으로 편찬한 목록으로 「누판고(鑊板考)」, 「규장총목(奎章總目)」 등 여러 종이 있다.

리재철과 리상용은 한국서지목록학 사상 현재까지 발견된 목록 가운데 유일하게 유서(類序)가 있는 서목으로 「홍씨독서록」을 소개한 바 있다.¹⁾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홍씨독서록」은 1810년(순조10년)에 연천 홍석주(淵泉洪奭周)(1774~1842)가 그의 동생 항해 홍길주(沆漉洪吉周)를 비롯한 홍씨 문중의 후학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 후학들의 독서생활을 진작시키기 위해 편찬한 분류순 선정도서해제목록이다. 이 유서(類序)는 그 체제 면에서 볼 때, 중국의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그 실제 내용은 홍석주가 역대의 서지목록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독특하게 작성한 것이다. 더구나 여한 십대문장가(麗韓十大文章家)의 한 사람에 꼽힐 정도로 뛰어난 문장력을 지닌 연천이 작성한 유서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컸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유서가 붙은 새로운 분류순 해제목록이 최근에 나왔다. 이 목록은 조선후기의 선비인 하석 이학수(霞石李學洙)가 편찬한 「洛伽筆談」이다. 이 「洛伽筆談」은 독립본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학수의 문집인 「하석만고(霞石謾稿)」에 수록되어 있다. 이 「洛伽筆談」은 얼핏 제목만 보아서는 목록 같이 보이지 않지만, 경부(經部), 사부(史部), 자부(子部)로 분류한 점, 각 부(部) 안에서 다시 유목을 구분하고, 유서(類序) 또는 안어(按語)를 붙인 점, 해당 주제 분야의 서적들을 열거한 점, 각 저록마다 해제를 붙인 점 등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을 살펴볼 때 분류순 해제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洛伽筆談」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발간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II」에 수록된 「하석만고」의 해제²⁾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동

1)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84.

고서해제 II」에서 “이 「洛伽筆談」에 수록한 중국 서적의 목록은 목록학으로서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된다”³⁾고 소개한 것이다. 필자가 실물을 조사한 결과 이 「洛伽筆談」은 체재 면에서 볼 때, 유서와 안어 그리고 저록의 해제를 갖춘 분류순 해제목록으로서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에 귀중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 「洛伽筆談」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거기에 수록된 유서는 물론 경부, 사부, 자부에 수록된 서적들의 대부분 중국 원나라의 마단림(馬端臨)이 편찬한 「문헌통고 경적고(文獻通考 經籍考)」(이하 「문헌통고文獻通考」)라 함)의 내용을 대부분 유용(流用)⁴⁾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 「洛伽筆談」에 수록된 유서(類序)를 읽으면서, 「한서예문지」와 「수서경적지」에 수록된 내용을 주로 인용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문헌통고」의 유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문헌통고」의 유서를 저본으로 옮겨 적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洛伽筆談」의 서두 부분에서 “「洛伽筆談」은 이학수가 동해(東海)로 귀양 갔을 때 저술한 것이다”⁵⁾라고 그 저자명을 밝히고, 이학수가 외숙인 태고옹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최근에 「洛伽筆談」 십 수만 언(言)을 저술하였습니다”⁶⁾라고 언급하여, 필자 역시 이 「洛伽筆談」을 이학수의 저술로 보고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역대 서목들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유용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대개 조선시대의 많은 선비들이 중국의 전적에 수록된 내용을 베껴가면서 학습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친구에게 보낸 서간문 등에서 자신의 저술임을 내세운 사실 등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학수의 가계와 생애, 「洛伽筆談」의 유용 사례 및 방식을 먼저 살펴보고, 이 「洛伽筆談」이 「문헌통고」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

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II」(서울:동 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343-358.

3) 위의 책, 358.

4) 여기에서 유용(流用)이란 말은 ‘표절(剽竊)’ 또는 ‘도용(盜用)’이란 용어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다.

5) 李學洙, 「霞石漫稿」卷19 洛伽筆談.

6) 李學洙, 위의 책, 卷7 關東錄 與太古翁

고자 한다.

2. 이학수(李學洙)의 가계 및 생애

먼저 하석 이학수(霞石李學洙)의 가계와 그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의 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학수는 본관은 공주(公州)이며, 호(號)는 하석(霞石)이다. 공주 이씨(公州李氏)는 고려조에 벼슬을 한 이교송(李喬松)을 시조로 삼는다⁷⁾ 그의 열조(烈祖)로는 고려조에 이우(李瑀), 이저(李苧), 이엽(李擘) 등이 있으며, 고려말 조선초의 명신으로 이명덕(李明德), 조선조에는 이광필(李光弼) 등이 있다. 고조(高祖) 이세해(李世楷), 증조(曾祖) 이동위(李東燁), 조부 이기신(李基信), 부친 이화진(李華鎭)인데 모두 벼슬에 오르지 못했으며, 이학수 본인 역시 벼슬을 하지 못하였다. 모친은 옥천 전씨(沃川全氏)이다.⁸⁾

이학수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이학수는 1838년(순조 18년) 부친 이화진(李華鎭)과 모친 옥천 전씨(沃川全氏) 사이에 2남 1녀 중 장남으로 경상북도 영천(榮川)에서 태어났다. 이학수의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 벼슬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학수의 부친은 학업에 열심히 정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의 부친은 어려서부터 재주와 학문이 뛰어났으며 열심히 공부하여 동년배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자자했으나 가정 형편 때문에 학문을 계속하지 못했지만 당시에 명망 높은 선비들도 미칠 수 없었던 높은 학식을 지녔다.¹⁰⁾

7) 李學洙, 「霞石漫稿」卷5 行狀 八代祖考 通德府君 行狀.
 府君諱惟馨 字德明 姓李氏 公州人 始祖 諱喬松 仕勝國 立大勳 封公山君 李之貫公以此

8) 李學洙, 「霞石漫稿」卷5 行狀 참조.

9) 이학수의 문집인 「하석만고」에 그의 행장이나 신도비, 묘지명, 묘갈명 등 그의 생애를 개관해 볼 수 있는 글이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생애는 「하석만고」에 수록된 각종 기사와 조부, 부친, 모친 등의 가장(家狀), 이밖에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서밖에 살펴볼 수 없다.

10) 李學洙, 「霞石漫稿」, 先府君行狀

이학수의 부친은 자신이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문을 계속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장남 학수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몹소 학문을 가르쳤다. 부친의 노력으로 인하여 이학수는 이미 8, 9살 때 이미 재주와 명성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부친은 학수가 학문을 게을리 할까 염려하면서 먼학을 당부하고 매사에 엄정하게 자식을 가르쳤다. 그의 부친은 학수가 장성하자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문을 넓히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보내면서 아들에게 박문(博聞)할 것을 당부하였다.¹¹⁾ 이학수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자신이 입신양명하여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애통해 하였다.¹²⁾

이학수의 모친 옥천 전씨 역시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며,¹³⁾ 그의 외삼촌 역시 이학수에 많은 학문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는 38세 때인 1875(고종 12년)에 유도수(柳道洙), 이상철(李相喆), 서승렬(徐昇烈) 등과 함께 동래, 원산을 일본에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소문인 척왜소(斥倭疏)를 지어 올려서 유배를 당하게 된다. 당시 상소문의 주모자는 유도수였으며, 이학수는 상소문을 지은 죄로 인하여 귀양을 가는데, 이학수는 초산부(楚山府), 유도수는 길주목(吉州牧), 함께 참여한 이상철은 갑산부(甲山府),

府君 天性醇厚 與物無競 才夙就 年八歲讀小學書 日受數十板 誦不錯一字 凡於事親敬兄之方 頗曉大義 及冠有聲儕友間 家貧無他兄弟 躬漁樵爲親供 甘旨不虧 用是廢業 雖不克擴其才 然凡掌故之學 文義之辯 沛然無礙 雖宿於儒者 自以爲不及.

11) 위의 글.

府君 嘗恨早年失學 教不肖 輒晨起授書 授已說古人爲學之方 凡遇卜筮推命之人 必問此兒能文章 曰可 必喜形於色 否則不怡者 良久... 不肖八九歲時 頗以才華名 人有以言者 府君輒悚然曰 才而不成 不若不才 而成妙年英銳 非後生之福 申戒不肖曰 人之稱譽於汝 非好言 年少量淺者 藉而不力 後必無成 惟加勉 能副其實 爾其念之 不肖 少負氣 昂然不肯受羈 的府君尙憂之曰 何等鹿氣習生我 謹拙家 每正色責勵 不容一步放過 及年長 使之遊學四方 以廣其見聞 曰 苟使爾成大名 吾貧不恨也.

12) 위의 글.

嗚呼 不肖以諛蔑之資 受府君教育之恩 謹免於面墻之譏 而卒未能成就大業 立揚顯名 以仰副府君冀待之萬一 則此息未絕之前 無非哀痛之日也.

13) 李學洙, 「霞石漫稿」, 先妣孺人全氏行狀.

容貌端莊 資品穎悟 幼從諸兄讀書傍解 得十九史小學諸書 多記古人言行之表裏者 至若宮書女工 皆不學而能.

서승렬은 벽동군(碧童郡)으로 각각 유배를 당하게 된다.¹⁴⁾ 이학수의 유배 생활은 1880년 내려진 사면조치로 인하여 양양부(襄陽府)에 이배되기까지 약 6년간 계속되며, 그가 언제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학수는 유배 시절에 그의 대표 저작인 「관서록(關西錄)」과 「관동록(關東錄)」 등을 찬술한다.¹⁵⁾ 이 논문에서의 논제인 「洛伽筆談」은 「관동록」에 수록되어 있다.

3. 「洛伽筆談」의 개관

여기에서는 「洛伽筆談」의 전래본, 저작성 문제, 편찬동기 및 시기, 「문헌통고」의 유용(流用)사례, 분류체계, 유서(類序)와 안어(按語) 그리고 해제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3.1 전래본(傳來本)

「洛伽筆談」은 현재 독립본은 없고, 이학수의 문집인 「하석만고(霞石謾稿)」에 부분본으로 수록되어 있다. 현재 이 「하석만고」는 필사본으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귀중본으로 소장되어 있다.¹⁶⁾

필자가 「하석만고」의 다른 판사본(版寫本)을 찾기 위해서 규장각, 장서각,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¹⁷⁾,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안동대학교, 계명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14) 「고종실록」 12년 3월 5일조, 6일조.
 1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II」(서울: 동 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16) 「하석만고」의 전체적인 체제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편찬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에 수록된 「하석만고」의 해제에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17)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편찬한 「만송김완섭문고목록」에서 이학수가 지은 「하석관서록(霞石關西錄)」 1책을 찾을 수 있었다

국내에서 간행된 고서목록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외의 다른 판사본은 찾지 못하였다. 혹시 「洛伽筆談」이 별도의 독립본으로 필사 또는 간행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해 보았으나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洛伽筆談」이 수록된 「하석만고」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이 유일본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 소장 「하석만고」는 전체 13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洛伽筆談」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10책에서 제13책까지 4책이다. 경부는 「하석만고」 제10책(하석만고 권19, [20]), 제11책(하석만고 권21, [22]), 제12책(하석만고 권23,¹⁸⁾ [24]), 사부는 제12책¹⁹⁾ 자부는 제13책(하석만고 권25, [26])²⁰⁾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하석만고」에서 집부(集部)는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자부가 수록된 13책이 「하석만고」 전체 13책의 마지막 책인 점으로 보아 이학수가 처음부터 집부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2 「洛伽筆談」의 저작성문제, 편찬 동기 및 성격

3.2.1 「洛伽筆談」의 저작성문제

이학수가 「洛伽筆談」을 저술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洛伽筆談」의 서두 부분과 그의 외숙(外叔)인 태고옹(太古翁)에게 보낸 서신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권24를 23으로 고친 자국이 있다. 이는 앞의 책과 권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19) 경부 약류와 사부가 12책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20) 「하석만고」 원본을 보면, '제10책은 권19, 제11책은 권21, 제12책은 권23, 제13책은 권25'라고 고만 표기되어 있고 각 책의 본문에 별도로 권차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제11책의 맨 앞에 권21로 표기하고, 마지막 장에 권22라는 표시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 책에 2권을 하나로 엮은 것으로 추측하여, 이렇게 권차 표시를 하였다.

「洛伽筆談」은 이학수가 동해(東海)로 귀양 갔을 때 저술한 것이다(洛伽筆談 李子居謫東海時作也).²¹⁾

최근에 「洛伽筆談」 십 수만 언(言)을 저술하였습니다(近日著洛伽筆談 十數萬言).²²⁾

위의 두 예문에서는 「洛伽筆談」이 이학수의 저술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이 이학수의 문집 「하석만고」에 수록되었으므로 이학수의 저작이란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학수가 태고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洛伽筆談」을 자신이 저술했다고 말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저(著)’ 자의 의미가 저술하다(著述)와 기록하다(著錄)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지만, 대개 ‘저(著)’ 자(字)를 특정한 책을 대상으로 배긴다는 의미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선비가 특정 서적의 내용을 베끼면서 그 저본에 대한 소개도 없이 마치 자신의 저술인 듯한 느낌을 주는 ‘저(著)’ 자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에 걸맞게 ‘베껴 썼다’라는 의미의 한자어인 사(寫), 초(抄), 록(錄) 등의 글자를 붙여서 「문헌통고」를 저본으로 초사(抄寫)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어야 온당했을 것이다.

3.2.2 「洛伽筆談」의 편찬 동기 및 시기

이학수가 「洛伽筆談」을 편찬한 동기와 대략적인 시기는 「洛伽筆談」의 서두 부분과 태고옹(太古翁)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洛伽筆談」은 이학수가 동해(東海)로 귀양 갔을 때 저술한 것이다. 그 책은 육경(六經)의 원류와 주해가들의 옳고 그름을 총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서 비록 그 저술한 내용이 이치에 맞는지 알 수 없으나, 부족하나마 이를 기록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洛伽筆談 李子居謫東海時作也 其書總論

21) 李學洙, 「霞石漫稿」 卷19 洛伽筆談.
22) 위의 책, 卷7 關東錄 與太古翁.

六經之源流 注家之是非 雖未知其言之合理 聊錄以爲就正之資云).²³⁾

내가 외숙보다 가난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죄를 짓고 쫓겨나서 내 자신을 지키는 데 힘을 쓴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나니, ... 최근에 「洛伽筆談」 십 수만 언(言)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논의는 육경에서 사부, 자부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언급했습니다. 맨 첫 권은 역류(易類)부터 시작하였습니다(吾貧於叔主太甚焉 今在負累放逐中 所以用力於自守者 已有年後 ... 近日著洛伽筆談 十數萬言 其論統言六經下及子史 首篇自易始).²⁴⁾

위의 예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洛伽筆談」의 편찬 동기는 이학수가 동해에 귀양 갔을 때 육경(六經)의 원류를 중심으로 경부, 사부, 자부의 서적들을 총괄적으로 수록하여 후학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洛伽筆談」의 편찬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학수는 1875년 상소사건으로 초산으로 유배 갔다가 1880년 강원도 양양부로 이첩된다. 이학수는 초산에서 저술한 글을 모아 「관서록(關西錄)」이라 하고, 양양부에서 저술한 글을 모아 「관동록(關東錄)」이라고 구분하여 그의 문집인 「하석만고(霞石漫稿)」에 수록하였다. 위의 예문에서 이학수가 동해에 있을 때 「洛伽筆談」을 저술했다고 했으며, 이 「洛伽筆談」이 「하석만고」의 「관동록」에 수록된 점으로 보아, 그가 강원도 양양부로 이첩된 1880년경에 이 「洛伽筆談」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洛伽筆談」의 편찬 시기는 대략 1880년경으로 잡는 편이 좋을 듯하다.²⁵⁾

3.2.3 수록 저록의 성격

「洛伽筆談」 서문에서 이학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3) 李學洙, 「霞石漫稿」, 卷19 洛伽筆談

24) 위의 책, 卷7 關東錄 與太古翁.

2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목록 II」(서울: 동 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345.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장구히 존속하되 인멸되지 않을 것은 의리뿐이다.” 그런 연유로 고인의 글 가운데 의리에 합치하는 것은 홀로 찌지 않고 남아 있으며, [의리]에 합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전하지 않는다. … 대개 서적이 진(秦)의 분서갱유를 당한 이후부터 대개 많이 누락되어 완전하지 않지만 역경은 점술책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 서경(書經) 백편과 시(詩) 삼천 수 가운데 온전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 오호라 그 남아 있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며 남아 있지 못한 것 역시 사람의 뜻이 아니다. 남을 만한 것이라면 비록 백 명의 진시황이라 해도 진실로 불타지 않았을 것이며, 남지 못할 것이라면 비록 진화(秦火)가 없었더라도 또한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그 남아 있음과 남아 있지 못함은 단지 의리(義理)에 합치하느냐 합치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李子曰 天地之間 長存而不泯者 惟義理而已 故古人文字之合於義理者 獨不朽 而其不合者 多不傳焉… 蓋自籍經之遭秦火以後 皆殘缺未完 而有易經以下筮而爲全書 … 至若書之百篇 詩之三千 所存者 亦無幾焉 於乎 其存之者 非人也 其不存之者 亦非人也 苟可存也 雖百秦政 固不足以燔之也 苟不存也 雖無秦火 亦已泯爾也. 其存與不存 只視義理之合不合而已也).²⁶⁾

그는 의리(義理)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서적이 나왔지만 의리에 합치하는 책이라야 민멸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이학수가 의리를 중시한 까닭은 당시의 다른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사림(士林)의 학통관에서 의리를 중요하게 여긴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3.3 「洛伽筆談」의 「문헌통고」 유용(流用) 사례

여기에서는 「洛伽筆談」에서 중국의 「문헌통고」를 유용(流用)한 사례를 경부, 사부, 자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3.1 경부

「洛伽筆談」의 경부는 주역류(周易類), 서류(書類), 시류(詩類), 예류(禮類),

26) 李學洙, 「霞石漫稿」, 卷19 洛伽筆談, 서두.

노이생론(魯二生論), 춘추류(春秋類), 논어맹자류(論語孟子類), 중용대학류(中庸大學類), 효경류(孝經類), 근사록심경류(近思錄心經類), 악류(樂類) 등 11개의 유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노이생론(魯二生論)의 경우 이를 경부 내의 독립된 유목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내용 자체가 노나라의 두 유생에 관해서만 논하고, 그와 관련된 저록을 한 종도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부의 실질적인 유목은 10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문헌통고」의 경부는 역류(易類), 서류(書類), 시류(詩類), 예류(禮類), 춘추류(春秋類), 논어맹자류(論語孟子類), 효경류(孝經類), 경해류(經解類), 악류(樂類), 의주류(儀注類), 시범류(諡法類), 참위류(讖緯類), 소학류(小學類) 등 13개의 유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洛伽筆談」에 수록되지 않은 유목은 경해류(經解類), 의주류(儀注類), 시범류(諡法類), 참위류(讖緯類), 소학류(小學類) 등 5개이다. 「문헌통고」의 경부 유목에 없는 것으로 이학수가 「洛伽筆談」에서 새로 설정한 유목으로는 노이생론(魯二生論), 중용대학류(中庸大學類), 근사록심경류(近思錄心經類) 등 3개가 있는데 노이생론을 제외하면 2개가 되는 셈이다.

먼저 「洛伽筆談」 경부의 각 유목에 수록된 서적을 대상으로 「문헌통고」의 내용을 유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洛伽筆談」의 주역류(周易類)에는 90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 역류에 수록된 「연산(連山)」, 「귀장(歸藏)」, 「감당정의(甘棠正義)」 등 15종의 저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적들이 모두 수록된 것이다. 서류(書類)에는 42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 서류에 수록된 서적 가운데 「고문상서(古文尙書)」, 「상서단장(尙書斷章)」 등 5종의 저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적들이 수록된 것이다. 시류(詩類)에는 29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 시류의 수록 서적 가운데 「시풍아송사권서(詩風雅頌四卷序)」 1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적을 수록한 것이다. 예류(禮類)에는 37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 예류의 서적 가운데 「주례구승설(周禮丘乘說)」, 「당월령(唐月令)」 등 24종의 저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적이다. 춘추류(春秋類)에는 81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는데, 「문

헌통고」 춘추류에 수록된 서적 가운데 「석경좌씨전(石經左氏傳), 「좌씨고황(左氏膏肓)」 등 18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적이다. 논어맹자류(論語孟子類)에는 13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 논어맹자류에 수록된 서적 중 「논어정전의도(論語井田義圖), 「경우논어강의(景迂論語講義)」 등 7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적들이다. 효경류(孝經類)에는 14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모두 「문헌통고」 효경류에 수록된 서적들이다.

악류(樂類)는 「문헌통고」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문헌통고」에서는 「악부잡록(樂府雜錄), 「역대악의(歷代樂儀)」 등 75종의 서적을 수록하는데 그쳤지만, 「洛伽筆談」의 경우 음악 전반에 걸쳐서 세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洛伽筆談」 악류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류에는 먼저 유서격으로 역대연혁(歷代沿革)이란 항목을 두고, 그 다음에 율려제도(律呂制度)와 도량형(度量衡)을 설정하였다. 이 도량형(度量衡)은 다시 심도(審度), 가량(嘉量), 형권(衡權)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에 금지속(金之屬), 석지속(石之屬), 토지속(土之屬), 혁지속(革之屬), 사지속(絲之屬), 포지속(匏之屬), 죽지속(竹之屬), 목지속(木之屬) 등 8가지로 구분하고, 순우(筍虞), 가부(歌部), 무부(舞部), 무기(舞器) 등으로 구분하여 음악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洛伽筆談」의 악류를 처음 접하면서, 「문헌통고」의 악류에 수록된 내용과 완전히 달라서 이학수의 독자성이 두드러진 부분이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이 향후 악서의 연구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재차 조사하여 보니, 이 악류 역시 「문헌통고」 권128에서 권145에 수록된 악고(樂考)1부터 악고18까지 수록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洛伽筆談」 경부는 이학수가 신설한 유목인 중용대학류(中庸大學類)와 근사록심경류(近思錄心經類)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문헌통고」 경부와 「문헌통고」의 악고(樂考)에 수록된 내용을 유용한 것이다.

3.3.2 사부

「洛伽筆談」의 사부는 정사류(正史類), 편년류(編年類), 기거주류(起居注類) 등 3개의 유목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서 「문헌통고」의 사부는 정사류(正史類), 편년류(編年類), 기거주류(起居注類), 잡사류(雜史類), 전기류(傳記類), 위사패사류(僞史霸史類), 사평사초류(史評史鈔類), 고사류(故史類), 직관류(職官類), 형법류(刑法類), 지리류(地理類), 시령류(時令類), 보첩류(譜牒類), 목록류(目錄類) 등 14개의 유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洛伽筆談」의 사부에 수록된 내용을 「문헌통고」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洛伽筆談」의 사부는 정사류, 편년류, 기거주류 등 3개의 유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록된 서적은 거의 전부가 「문헌통고」 사부의 해당 유목에 수록된 서적들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사류(正史類)에는 23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 정사류에 수록된 「후위서천문지(後魏書天文志)」를 「후한서천문지(後漢書天文志)」로 잘못 배긴 것을 제외하고 모두 「문헌통고」의 정사류에 수록된 서적들이다.

편년류(編年類)에는 56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는데, 이들은 「문헌통고」 편년류에 수록된 서적 중 「후한기(後漢紀)」, 「원경설씨전(元經薛氏傳)」, 「기년통보(紀年通譜)」, 「자치통감(資治通鑑)」, 「통감기사본말(通鑑紀事本末)」, 「통감강목(通鑑綱目)」 등 6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적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洛伽筆談」 편년류에 수록된 56종의 저록 가운데 53 번째 저록부터 마지막에 나열한 저록인 「소미통감절요(少微通鑑節要)」, 「역대사략(歷代史略)」, 「송감(宋鑑)」, 「송원강목(宋元綱目)」 등 4종의 저록은 「문헌통고」에 수록되지 않은 저록들을 이학수가 부기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편년체 역사서를 모두 기입한 다음 그 말미에 왕세정(王世貞)이 편찬한 「강감(綱鑑)」을 기입하고 그 밑에 정사(正史)라고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정사에서 빠뜨린 저록을 편년류의 저록을 열거한 후 맨 마지막에 그 저록을 기입하여 후보하기도 하였다.

기거주류(起居注類)에는 55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의 기거주

류에 수록된 서적 중 「본조대조령(本朝大詔令)」, 「옥당제초(玉堂制草)」, 등 5종의 서적을 뺀 나머지 서적들이다.

3.3.3 자부

「洛伽筆談」의 자부는 유가류(儒家類), 도가류(道家類), 법가류(法家類), 명가류(名家類), 묵가류(墨家類), 중횡가류(縱橫家類), 병가류(兵家類), 농가류(農家類), 잡가류(雜家類), 소설가류(小說家類) 등 10개의 유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비해 「문헌통고」 자부는 유가류(儒家類), 도가류(道家類), 법가류(法家類), 명가류(名家類), 묵가류(墨家類), 중횡가류(縱橫家類), 잡가류(雜家類), 소설가류(小說家類), 농가류(農家類), 천문류(天文類), 역산류(曆算類), 오행류(五行類), 점서류(占筮類), 형법류(刑法類), 병서류(兵書類), 의가류(醫家類), 방중류(房中類), 신선류(神仙類), 석씨류(釋氏類), 유서류(類書類), 잡예술류(雜藝術類) 등 21개의 유목으로 구성되었다. 「洛伽筆談」에서는 이 21개의 유목 가운데 천문류(天文類), 역산류(曆算類), 오행류(五行類), 점서류(占筮類), 형법류(刑法類), 의가류(醫家類), 방중류(房中類), 신선류(神仙類), 석씨류(釋氏類), 유서류(類書類), 잡예술류(雜藝術類) 등 11개의 유목은 제외하고 수록하지 않았다.

「洛伽筆談」 자부의 각 유목별로 「문헌통고」 자부의 내용을 유용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가류(儒家類)에는 53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 유가류에 수록된 서적 가운데 「온공집주법언(溫公集注法言)」, 「범씨주태원경해(范氏註太元經解)」, 「설원(說元)」 등 37종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다. 도가류(道家類)에는 19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 도가류에 수록된 「하상공주노자(河上公注老子)」, 「노자지귀(老子指歸)」, 「노자약론(老子畧論)」 등 35종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다.

법가류(法家類)에는 4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 법가류에 수록된 4종 그대로이며, 명가류(名家類)에는 5종, 묵가류(墨家類)에는 3종의 서적이

각각 수록되었는데, 모두 「문헌통고」의 해당 유목에 수록된 서적과 동일하다. 종횡가류(縱橫家類)에는 「귀곡자(鬼谷子)」와 「전국책(戰國策)」 등 2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에는 이 2종의 서적 외에 「포씨교정전국책(鮑氏校定戰國策)」이 하나 더 수록되어 있다.

병가류(兵家類)에는 31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 병서류에 수록된 「이전주손자(李筌注孫子)」, 「두목주손자(杜牧注孫子)」 등 「손자」 관련 서적 7종과 「장횡거주위료자(張橫渠注尉繚子)」 등 「위료자」 관련 서적 1종과 「희녕수복회하진법(熙寧收復熙河陣法)」 1종 등 9종의 저록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다. 농가류(農家類)에는 16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 농가류에 수록된 「죽보(竹譜)」, 「순보(筍譜)」, 「다보(茶譜)」, 「건안다록(建安茶錄)」 등 39종의 서적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며, 여기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문헌통고」에 수록되지 않은 「산림경제(山林經濟)」를 수록한 점이다.

잡가류에는 24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의 잡가류에 수록된 서적 가운데 「풍속통의(風俗通義)」, 「서응도(瑞應圖)」, 「자초(子鈔)」 등 41종의 저록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다. 소설가류에는 24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문헌통고」에서 소설가류에 수록한 220여종의 서적 가운데 18종만을 선정하고, 그 밖에 「십주기(十洲記)」, 「세설신어(世說新語)」, 「술이기(述異記)」, 「삼국지(三國志)」, 「서유기(西遊記)」, 「금병매(金瓶梅)」 등 6종은 이학수가 추가한 것이다. 「문헌통고」가 원나라 때 나온 것이므로 이학수가 그 후에 나온 서적을 선정하여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부에 수록된 저록들 역시 거의 다 「문헌통고」에 수록된 서적들이다. 하지만 정부와 사부에 비해서 자부 유목의 경우 상당수의 서적을 간주려 옮겼다.

3.4 「洛伽筆談」의 분류체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洛伽筆談」이 「문헌통고」의 내용을 대부분 베껴적은 사실을 감안한 상태에서 그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洛伽筆談」의 분류체계

經部	(度量衡)	編年
	(金之屬)	起居注
周易	(石之屬)	子部
書	(土之屬)	
詩	(革之屬)	
禮	(絲之屬)	儒家
春秋	(匏之屬)	道家
論語孟子	(竹之屬)	法家
中庸大學	(木之屬)	名家
孝經	(筍虞)	墨家
近思錄心經	(歌部)	兵家
樂	(舞部)	農家
(歷代沿革) ²⁷⁾		雜家
(律呂制度)	史部	小說家
	正史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洛伽筆談」은 당시 통용하던 사부분류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경부(經部)는 10류(類), 사부(史部)는 3류(類), 자부(子部)는 9류(類)로 구분하고 있다.²⁸⁾

3.5 해제

「洛伽筆談」과 「문헌통고」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유목의 저록 해제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洛伽筆談」에 수록된 해제는 「문헌통고」에 수록된 해제의 내용을 유용하였거나, 그 내용을 축약하는 등 대부분 「문헌통고」의 해제 내용을 저본으

27) 악류의 하위 항목에 괄호를 친 이유는, 이학수가 「문헌통고」 악류에 수록된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고, 「문헌통고」의 권128에서 145에 수록된 악고(樂考)1부터 악고(樂考)18까지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어서, 거기에 수록된 항목들을 참고적으로 밝히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28) 「洛伽筆談」에는 주제의 각 분지를 알려주는 부(部), 류(類), 속(屬) 등의 접미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사부분류법에서 사용하는 부(部)와 류(類)로 구분하였다.

로 기술한 것이었다. 「문헌통고」에 수록된 각 저작의 해제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洛伽筆談」에 그대로 옮겨 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해제의 기술방식을 보면, 「문헌통고」에 수록된 해제의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그 해제 내용을 그대로 옮겼으며, 해제의 내용이 긴 경우에는 첫 문단 또는 둘째 문단까지를 그대로 옮긴 경우도 있었다. 또한 「문헌통고」에 수록된 해제의 내용 가운데 중간 중간 조금씩 발췌한 경우도 있으며, 그 내용을 저본으로 변형해서 간략하게 해제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洛伽筆談」에서는 「문헌통고」의 해제에서 ‘진씨왈(陳氏曰)’, ‘조씨왈(晁氏曰)’, ‘수서경적지왈(隋書經籍志曰)’, ‘송문총목(崇文總目)’ 등 그 문장의 출처를 가리키는 말은 대개 생략하고 그 다음 문장부터 기술하였다.

4. 「문헌통고」와의 차이

여기에서는 「洛伽筆談」의 내용 가운데 「문헌통고」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 즉 「洛伽筆談」이 「문헌통고」와 차이 나는 부분을 유목 설정의 차이와 목록기입상 차이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1 유목(類目) 설정의 차이

여기에서는 「洛伽筆談」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문헌통고」에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1 경부(經部)

「洛伽筆談」의 경부에서 「문헌통고」와 차이 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洛伽筆談」의 경부에는 「문헌통고」에 없는 유목인 중용대학류(中庸大學類)를 설정하고 거기에 13종의 저록을 수록하였다. 이 가운데 「유정부중용해(游定夫中庸解)」 「사마군실용학(司馬君實庸學)」 등 과반수 정도의 저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적은 「문헌통고」의 예류에 수록된 저록들이다. 그러나 여기에 통상 자부 유가류에 분류하는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수록한 점이 눈에 띈다.

둘째, 「洛伽筆談」의 경부에는 「문헌통고」에 없는 유목인 근사록심경류(近思錄心經類)를 별도의 유목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주자의 「근사록(近思錄)」, 진덕수의 「심경(心經)」 등 2종의 저록을 수록한 점이다. 통상 사부분류법의 경부에는 주로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수록하고, 「근사록」과 「심경」 같은 서적은 자부 유가류에 분류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를 경부에 분류하고, 그들 서명을 유목 명으로 내세운 점은 기존 사부분류법 체계와는 다른 점이다. 이학수는 근사록심경류를 경부에 별도의 유목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근사록(近思錄)」과 「심경(心經)」은 … 이 책은 비록 성인의 경전은 아니다. 그러나 처음 학문에 입문하는 사람이 학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보다 가까운 것은 없다(近思錄心經者 … 其書 雖非聖人之經 然初學入頭之方 莫近焉).²⁹⁾

그는 「근사록」과 「심경」이 성인의 경전은 아니지만 초학자가 학문에 입문하는 데 가장 긴요하고 평이한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이들 두 책을 경부에 독립적인 유목으로 설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그러나 경부에 근사록심경류를 유목명으로 설정한 것은 다른 여타 목록들과 비교해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헌통고」에는 없는 유목으로서 이학수가 독자적으로 경부에 수록한 점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9) 李學洙, 「洛伽筆談」, 經部 近思錄 心經.

4.1.2 사부(史部), 자부(子部)

「洛伽筆談」의 사부, 자부에서 「문헌통고」와 차이 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洛伽筆談」 사부 편년목에 수록된 저록 57종 가운데 「문헌통고」 편년류에 수록되지 않은 「소미통감절요(少微通鑑節要)」, 「역대사략(歷代史略)」, 「송감(宋鑑)」, 「송원강목(宋元綱目)」, 「강감(綱鑑)」 등 5종의 저록을 추가하였다.

둘째, 「洛伽筆談」의 자부 병가류에는 「문헌통고」에 수록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병서인 「병학지남(兵學指南)」과 「연기신편(演機新編)」을 추가하였다.

셋째, 「洛伽筆談」의 자부 농가류에는 조선후기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山林經濟)」를 추가하였다.

넷째, 「洛伽筆談」의 소설가류에는 「문헌통고」에 수록되지 않은 「삼국지(三國志)」, 「수호지(水滸志)」, 「서유기(西遊記)」, 「금병매(金瓶梅)」 등의 저록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이학수가 소설가류에 명대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추가한 이유는 「문헌통고」가 원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학수가 명대의 대표적인 소설을 선정하여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4.2 「洛伽筆談」의 목록기입

「洛伽筆談」과 「문헌통고」를 서로 비교해 보면 「洛伽筆談」이 「문헌통고」를 저본으로 베꼈다는 사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양 목록의 서명만 대조해 보아도 이 같은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洛伽筆談」의 각 유목에 수록된 서명의 기입방식은 「문헌통고」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 즉, 이학수가 「문헌통고」의 서명을 옮기는 과정에서 거기에 수록된 서명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나름대로 서명의 기입방식을 달리한 사례가 있는 것이다. 양 목록의 서명을 대조해 본 결과, 서명기입상의 차이는 오직 「洛伽筆談」 경부의 서적에서만 나타나고, 사부와 자부에

수록된 서명의 경우 「문헌통고」의 것과 거의 일치하였다. 이들 내용을 각각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4.2.1 서명기입

서명기입에서 차이가 나는 예로는 서명을 축약한 경우, 서명에 포함된 유목명을 삭제한 경우, 서명 앞에 저자명을 선행하여 기입한 경우, 서명에 포함된 저자명을 달리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을 각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1.1 서명을 축약한 경우

「洛伽筆談」에서는 「문헌통고」에서와 달리 그 서명을 축약하여 기술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열기하면 다음과 같다.

예:

「洛伽筆談」	「문헌통고」
京房易	京房易傳
王弼易	王弼易註畧例繫辭註
石經易	石經周易周易指畧例
袁氏讀書記	袁氏家塾讀書記
胡氏安國春秋傳	胡文定春秋傳通例通旨

4.2.1.2 서명에 포함된 유목명을 삭제한 경우

「洛伽筆談」에서는 「문헌통고」에서와 달리 그 서명에 포함된 유목명을 삭제한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열기하면 다음과 같다.

예:

<u>「洛伽筆談」</u>	<u>「문헌통고」</u>
李鼎祚集解	李鼎祚周易集解
沈該小傳	沈該周易小傳
孔安國註	孔安國尚書註
陸德明釋文	陸德明尚書釋文
韓嬰外傳	韓嬰詩外傳
公羊傳	春秋公羊傳

4.2.1.3 서명 앞에 저자명을 선행해서 기입한 경우

「洛伽筆談」에서는 「문헌통고」에서와 달리 서명 앞에 저자명을 선행해서 기입한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열기하면 다음과 같다.

예:

<u>「洛伽筆談」</u>	<u>「문헌통고」</u>
康平河圖解	河圖解(찬자는 康平)
伏勝尚書大傳	尚書大傳(찬자 伏勝)
石汝礪乾生歸一圖	乾生歸一圖(찬자 石汝礪)
葉夢得石林書傳	石林書傳(찬자는 葉夢得)
錢文子白石詩傳	白石詩傳(찬자 錢文子)
孔穎達毛詩正義	毛詩正義(찬자는 孔穎達)
賈公彥儀禮疏	儀禮疏(찬자는 賈公彥)
何休公羊傳詁解	公羊傳詁解(찬자는 何休)
章冲類事始末	春秋類事始末(찬자는 章冲)
柳宗元非國語	非國語(찬자는 柳宗元)

4.2.1.4 서명에 포함된 저자명을 달리한 경우

4.2.1.4.1 서명 앞에 선행해서 기입한 ‘호’를 ‘저자의 성+자(子)’의 형식으로 바꾸어 기입한 경우

「洛伽筆談」에서는 「문헌통고」에서와 달리 서명의 서두에 포함된 저자의 호’를 ‘저자의 성+자(子)’의 형식으로 바꾸어 기입한 경우가 있다. 그 예를 열기하면 다음과 같다.

예:

<u>「洛伽筆談」</u>	<u>「문헌통고」</u>
朱子本義啓蒙	晦庵易傳易本義易學啓蒙傳
程子書說	伊川書說
朱子書說	晦庵書說

4.2.1.4.2 서명의 서두에 ‘성+씨’로 된 저자명을 ‘성+이름’의 형식으로 바꾸어 기입한 경우

「洛伽筆談」에서는 「문헌통고」에서와 달리 서명의 서두에 ‘성+씨’로 된 저자명을 ‘성+이름’의 형식으로 바꾸어 기입한 경우가 있다. 그 예를 열기하면 다음과 같다.

예:

<u>「洛伽筆談」</u>	<u>「문헌통고」</u>
呂大臨章句	呂氏易章句(찬자는 呂大臨)
楊中立論語	楊氏注論語(찬자는 楊中立)
游定夫論語	游氏論語解(찬자는 游定夫)
尹彥明孟子	尹氏孟子解(찬자는 尹彥明)

4.2.1.43 서명 앞에 저자 표시로 적은 ‘호’를 ‘성+이름’의 형식으로 바꾸어 기입한 경우

「洛伽筆談」에서는 「문헌통고」에서와 달리 서명의 서두에 저자표시로 적은 ‘호’를 ‘성+이름’의 형식으로 바꾸어 기입한 경우가 있다. 그 예를 열기하면 다음과 같다.

예:

<u>「洛伽筆談」</u>	<u>「문헌통고」</u>
呂伯恭書說	東萊書說
蘇子瞻論語解	東坡論語解
胡仁仲指南	五峯論語指南
王居正感發	竹西論語感發

4.2.2 권수 표시

「洛伽筆談」의 경부는, 「문헌통고」와 달리, 서명 다음에 권수표시를 생략하고 있으나, 사부와 자부는 「문헌통고」의 예와 동일하게 서명 다음에 권수표시를 해 주고 있다. 이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경부(經部)	
<u>「洛伽筆談」</u>	<u>「문헌통고」</u>
子夏易	子夏易 十卷
石經尚書	石經尚書 十三卷
詩物性門類	詩物性門類 八卷

사부(史部), 자부(子部)

「洛伽筆談」	「문헌통고」
曾子 二卷	曾子 二卷
賈誼新書 十卷	賈誼新書 十卷
史記 一百三十卷	史記 一百三十卷
漢紀 三十卷	漢紀 三十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洛伽筆談」의 경부에 국한된 것이지만, 목록 기입에 있어서, 「문헌통고」와 다른 기입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5. 「洛伽筆談」의 유서(類序)와 안어(按語)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서지목록학사상 현재까지 발견된 서목 중에 유서(類序)가 있는 것으로는 「홍씨독서록」이 유일하였으나, 「문헌통고」의 내용을 유용했다는 점을 전제로 할 경우, 이 「洛伽筆談」의 소개로 형식과 체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서(類序)가 붙은 두 번째 서목이 나온 셈이다.

필자는 애초에 「홍씨독서록」의 유서를 「洛伽筆談」의 유서와 대비하여 그 내용의 개략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문헌통고」의 내용을 대부분 유용한 것이어서, 「하석만고」와 「홍씨독서록」의 유서를 서로 대비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유서(類序)와 안어(按語)의 정의와 「洛伽筆談」에 수록된 유서와 안어의 수록 상황을 살펴보고, 「문헌통고」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1 유서와 안어의 정의

유서(類序) 또는 안어(按語)란 각 유목(類目), 즉 주제 분야에 대한 해설로서

각 분류항목(類目)에 수록된 문헌과 관련하여 그 주제 분야의 원류와 변화 과정 그리고 그 성격 등의 개요를 적은 것이다. 유서(類序)는 각 주제 분야의 저록을 배열하기에 앞서 맨 앞에 그 주제의 개요에 대해 기술한 것이고, 안어(按語)는 해당 주제 분야의 저록을 모두 열거한 말미에 후서격으로 기술한 것이다.

중국의 주요 역대 예문지 가운데 「한서예문지」와 「수서경적지」의 경우 각 분류항목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저록을 열거한 뒤에 그 유목의 저자와 저록의 권수를 밝힌 다음에 해당 유목의 개략을 설명해 주는 후서(後序)를 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신당서예문지(新唐書藝文志)」, 「송사예문지(宋史藝文志)」, 「명사예문지(明史藝文志)」의 경우 제 1분지인 각 부(部)에만 서문을 간략히 기술하고, 각 유목마다에는 각 유목에 해당하는 저자수와 권수만 기술하고, 서문도 후서도 두지 않았다.³⁰⁾ 그러나 「사고전서총목」에서는 각 유목의 서두에 유서(類序)가 붙어 있고, 유목에 따라 유목의 말미에 후서격인 안어(案語)가 놓여 있다. 그러나 그의 축약본인 「간명목록」에는 유목의 서두 대신 각 유목의 말미에 ‘근안(謹案)’의 형식으로 후서격인 안어가 붙어 있고, 경우에 따라 안어가 없는 유목도 상당히 있다.

5.2 「洛伽筆談」의 유서 및 안어의 수록상황

「洛伽筆談」에는 각 유목의 서두 부분에 그 주제 분야의 원류와 변화 과정 등 학문의 개요를 기록한 유서(類序)가 있는데, 대부분 「문헌통고」의 유서 내용을 유용한 것이다. 또한 「洛伽筆談」에는 각 유목에 해당되는 저록을 모두 열거한 맨 뒤에 그 개요를 기술한 안어(按語)가 있다. 각 부별로 유서와 안어의 수록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부는 주역류(周易類), 서류(書類), 시류(詩類), 예류(禮類), 노이생론(魯二生論), 춘추류(春秋類), 논어맹자류(論語孟子類), 중용대학류(中庸大學類), 효경류(孝經類), 근사록심경류(近思錄心經類), 악류(樂類) 등 11개의 유목으로 구

30) 「隋書經籍志」, 「新唐書藝文志」, 「宋史藝文志」, 「明史藝文志」 참조

분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이생론(魯二生論)을 제외하면 10개의 유목이 되는 셈이다.

경부(經部)의 10개의 유목에는 모두 유서가 수록되었다. 춘추류³¹⁾와 이학수가 추가한 유목인 중용대학류, 근사록심경류를 제외한 나머지 유목에 수록된 유서는 「문헌통고」의 각 유목의 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거나 축약 또는 변형한 것이다.

경부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문헌통고」와는 달리³²⁾ 각 유목의 후서 형식으로 안어를 마련한 점이다. 「洛伽筆談」의 경부에서 후서격인 안어가 있는 유목은 주역류(周易類), 서류(書類), 논어맹자류(論語孟子類) 등 3개가 있다. 그런데 이 「洛伽筆談」의 주역류(周易類)에 수록된 안어는 「문헌통고」의 역류(易類)에 수록된 「이천역전(伊川易傳)」의 해제 중간 부분에 기술된 안어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 「洛伽筆談」 서류(書類)의 안어³³⁾는 「문헌통고」 경부 서류의 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즉, 「洛伽筆談」에서 이학수가 안어(按語)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 그 안어의 내용은 대부분 「문헌통고」의 해제 또는 유서 등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안어의 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洛伽筆談」이 「문헌통고」와 다른 점은 주역류, 서류, 시류, 예류, 춘추류 등 소위 오경(五經)을 열거한 다음에 바로 오경에 대한 총설(總說)을 기술한 점이다. 이 오경(五經)에 대한 총설은 「문헌통고」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분류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경부의 유목을 모두 전개한 후에 경부에 대한 총설을 기술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 아쉬움이 있다. 경부의 각 유목의 유서 내용은 대부분 「문헌통고」 경부에 있는 각 유목의 유서를 대부분 유용한 것인데, 「문헌통고」 경부에 없는 유목인 중용대학류(中庸大學類), 근사록심경류(近思錄心經類)의 경우는 이학수가 그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부(史部)는 정사류(正史類), 편년류(編年類), 기거주류(起居注類) 등 3개의

31) 춘추류의 경우 「문헌통고」의 춘추류의 유서와 대조해 보았는데, 그 내용이 같지 않았다.

32) 「문헌통고」에도 안어(按語)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각 유목의 후서격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본문의 중간에 안어를 넣고 있다.

33) 「洛伽筆談」 서류의 안어(按語)의 경우 맨 앞에 시작에 ‘안(按)’이란 단어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서류의 저록을 모두 기입한 다음 맨 마지막에 후석 격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어(按語)로 보아도 무방하다.

유목으로 구분되었는데 모두 유서(類序)가 붙어 있다. 유목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경부에서는 각 유목마다 서두에 유서를 기술한 다음 이어서 해당 저록을 열거한 데 비해, 사부에서는 정사류, 편년류, 기거주류 등 3종의 유서를 연이어 기술한 다음에 다시 정사류, 편년류, 기거주류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저록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같은 체제는 「문헌통고」에 수록된 체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들 사부의 유서 역시 「문헌통고」의 유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헌통고」에서와 마찬가지로 「洛伽筆談」의 사부에서는, 경부와는 달리, 각 유목에 안어(按語)를 마련하지 않았다.

자부(子部)는 유가류(儒家類), 도가류(道家類), 법가류(法家類), 명가류(名家類), 묵가류(墨家類), 중횡가류(縱橫家類), 병가류(兵家類), 농가류(農家類), 잡가류(雜家類), 소설가류(小說家類) 등 10개의 유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유서가 있다. 이들 자부의 유서 역시 「문헌통고」의 유서 내용을 대부분 유용한 것이다. 안어의 경우, 사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부에도 안어가 마련된 유목은 하나도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부와 사부와 자부의 유서는 대개 「문헌통고」의 내용을 저본으로 하여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洛伽筆談」에서 후서격인 안어(按語)를 마련한 점, 오경(五經)을 열거한 다음에 오경에 대한 총설을 붙인 점 등은 「문헌통고」의 체제와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은 조선 후기의 선비인 하석 이학수(霞石李學洙)가 편찬한 「洛伽筆談」이 중국 원나라 문인인 마단림(馬端臨)이 편찬한 「문헌통고」의 내용을 유용(流用)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의 분류체계와 유서의 현황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洛伽筆談」에서 「문헌통고」의 내용을 유용한 사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부는 주역류(周易類), 서류(書類), 시류(詩類), 예류(禮類), 노이생론(魯二生論), 춘추류(春秋類), 논어맹자류(論語孟子類), 중용대학류(中庸大學類), 효경류(孝經類), 근사록심경류(近思錄心經類), 악류(樂) 등 10개의 유목에 36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는데, 노이생론(魯二生論)의 경우는 이를 독립된 유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부의 실질적인 유목은 10개로 보았다. 이 10개의 유목 가운데 「문헌통고」에 없는 유목은 근사록심경류(近思錄心經類), 중용대학류(中庸大學類)이고 그 내용면에서 「문헌통고」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유목은 악류인데, 이 악류의 내용은 「문헌통고」 악고(樂考)에 수록된 내용을 유용한 것이다. 이들 유목을 제외한 나머지 유목에 수록된 서적은 거의 다 「문헌통고」에 있는 내용을 유용한 것이다.

사부는 정사류(正史類) 23종, 편년류(編年類) 56종, 기거주류(起居注類) 55종 등 3개의 유목에 총 134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는데, 이들 서적은 역시 대개 「문헌통고」의 해당 유목에 수록된 서적을 유용한 것이다.

자부는 유가류(儒家類), 도가류(道家類), 법가류(法家類), 명가류(名家類), 묵가류(墨家類), 종횡가류(縱橫家類), 병가류(兵家類), 농가류(農家類), 잡가류(雜家類), 소설가류(小說家類) 등 10개의 유목에 총 189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는데, 이들 서적도 대부분 「문헌통고」의 해당 유목에 수록된 내용을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학수가 「문헌통고」의 내용을 유용하면서 그대로 베끼지는 않았다. 「洛伽筆談」은 나름대로 「문헌통고」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洛伽筆談」의 경부에서 「문헌통고」에 없는 ‘중용대학류(中庸大學類)’, ‘근사록심경류(近思錄心經類)’를 독립된 유목으로 신설한 점, 자부에서 우리나라의 서적인 「병학지남(兵學指南)», 「연기신편(演機新編)», 「산림경제(山林經濟)」 등을 추가한 점, 「문헌통고」에 수록되지 않은 「삼국지(三國志)», 「수호지(水滸志)», 「서유기(西遊記)», 「금병매(金瓶梅)」 등 명대의 대표적인 서적을 추가한 점, 서명의 기입에 있어서 서명을 축약하거나, 서명에 포함된 유목명을 삭제하거

나, 서명 앞에 저자명을 선행하여 기입한 점 등은 「洛伽筆談」이 「문헌통고」와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洛伽筆談」의 유서(類序)와 안어(按語)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洛伽筆談」의 경부, 사부, 자부의 모든 유목에 유서가 마련되어 있다. 이들 유서는 대부분 「문헌통고」의 내용을 유용한 것이었다. 「洛伽筆談」에서는 「문헌통고」와는 달리 후서격인 안어의 형식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 안어의 내용 역시 「문헌통고」의 유서나 해제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안어형식으로 만든 것이었다.

조선후기의 선비인 이학수가 마단림이 편찬한 「문헌통고」의 내용을 자신이 유용하면서, 「洛伽筆談」이란 새로운 제목을 붙여 마치 자신의 저술처럼 보인 것은 당시 선비의 입장에서 볼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비가 저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책을 대본으로 놓고 유용하면서 그 대본이 된 책의 원명을 밝히지 않았으며, 저록의 해제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문헌통고」에서 밝힌 원전의 출처를 삭제한 채 해제를 기술한 것은 학문적, 도덕적인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洛伽筆談」은 대략 1880년경에 편찬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편찬된 지 약 120여년 후인 지금, 중국책의 내용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洛伽筆談」은, 그 목록의 형식 및 체재 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목록사상 「홍씨독서록」 다음으로 유서가 붙은 분류순 해제목록이라는 위상을 지녔으며, 그것이 중국의 「문헌통고」보다 약 560여년이 지난 후에 편찬된 관계로, 「문헌통고」가 담고 있는 정보의 낙후성을 지극히 미미하나마 보완하고 조절하여 수찬한 것이라는 면에서, 바꾸어 말하여, 이 「洛伽筆談」이 「문헌통고 경적고」의 한국버전이라는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이용률이 높은 참고서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참고문헌>

1. 원전류

馬端臨, 文獻通考, 中華書局, 1986.

高宗實錄, 朝鮮王朝實錄, 卷47, 影印縮刷版,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71.

李學洙, 霞石謾稿,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 귀중본.

李學洙, 洛伽筆談(霞石謾稿 제10-13책),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 귀중본

2. 고서목록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송 김완섭문고 목록」. 동대학교 중앙도서관, 1979.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목록」. 동대학교 중앙도서관, 1984.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동 도서관, 1970.

국사편찬위원회. 「고서목록」. 국사편찬위원회, 1983.

국회도서관 사서국 참고서지과. 「한국고서종합목록」. 국회도서관, 1968.

국회도서관. 「고서목록」. 동 도서관, 1995.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동 대학교 중앙도서관, 1987.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서종합목록」. 동 대학교 동산도서관, 2004.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한적목록」. 동대학교 동 율곡기념도서관, 1994.

동국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 동 대학교 도서관, 196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동 대학교 중앙도서관, 1981.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도서 한국본 종합목록」(수정판). 동 대학교 규장각, 199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고서목록. 동 대학교 출판부, 2002.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동 대학교 중앙도서관, 1979.

안동대학교 도서관. 「안동대학교 도서관 소장 고서목록 1, 2」. 동 대학교 도서관, 199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동 중앙도서관, 1977.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제2집, 동 대학교 중앙도서관, 1987.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 남재문고」. 동 대학교 중앙도서관, 2001.
이상은. 「고서목록I, II」. 보경문화사, 198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고서목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1.
한국문화재 관리국. 「장서각도서 한국관 총목록」. 장서각, 1972.
충남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 충남대학교 도서관, 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목록 : 고서편」, 동 연구원, 1991.

3. 기타 논저류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학교 소장 고서해제 I, II」. 서울 : 동대학교
동 연구원, 2004.
李尙鏞.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4.
李載喆. “한국서지목록학사의 일 연구.” 「성곡논총」 제7집(1976), 580-598.

K C I